

젊은 전문번역가들이 뿔다

문학·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로 탄탄한 실력 발휘

최근 분야와 언어권을 막론하고 젊은 전문번역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30대가 주류를 이루며 대학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이들 전문번역가들은 국내 출판계가 저작권에 관한 개념을 뚜렷하게 갖기 시작한 90년대부터 눈에 띄기 시작, 국내 번역물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최근에는 그 양이나 질에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번역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베스트셀러에 번역가들 활약 커

우선 번역 출판물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소설류의 경우, 이른바 베스트셀러로 대상을 좁혀갈수록 젊은 번역가들의 활약은 더욱 눈에 띈다.

언어권별로 나누었을 때 영미권의 경우 마이클 클라이튼의 《쥐라기 공원》 《펠리컨 브리프》, 존 그리삼의 《의뢰인》 《가스실》 등 베스트셀러를 비롯, 최근 출간된 네이폴의 《홍내》, 《만화로 보는 프로이트》 등을 번역한 정영목씨와 네이폴의 《세계속의 길》, 토니 모리슨의 《재즈》, 리처드 칼슨의 《내 영혼의 핸드북》 등을 번역한 최인자씨, 시드니 셸던의 《시간의 모래밭》을 번역했던 공경희씨가 눈에 띈다.

최근 상당한 양이 출간되어 많은 국내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불어권은 프랑스 유학파를 중심으로 한 전문번역층이 상당히 두텁다. 《개미》 《드라큘라》 《인도의 사랑》을 번역한 이세욱씨와 《방드르디》를 비롯, 미셸 투르니에와 장 그르니에 등의 작품과 최근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 《말벌》 《편도승차권》을 번역한 이재형씨,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을 번역해 96년 프랑스 외무성 번역장 학금을 받은 허경은씨, 모리스 블랑쇼의 《미래의 책》과 쥐스틴 레비의 《만남》 등을 옮긴 최윤정씨, 르네 벨레토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크누트 함순의 《굵주림》을 번역한 우종길씨 등이 활발하다.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주축을 이루며 주로 대학교수들의 번역에 의존해왔던 독어권도 젊은 전문번역가들의 문예물 번역이 활발하다. 《좀머씨 이야기》 《비둘기》 등 쥐스킨트의 작품들과 레온 드 빈터의 《호프만의 허기》 등을 번역한 유혜자씨, 잉에 슈테판



윗줄 왼쪽부터 김동광·허경은·황병하·이세욱·유혜자·박성준씨.

의 《프로이트를 만든 여자들》 롤랑 퀴블리의 《첫눈송이에 대한 전설》 등을 비롯, 《남과 여에 관한 우울하고 슬픈 결론》 《발터 벤야민 전기》 등을 옮긴 이영희씨가 두드러진다.

다양한 언어권으로 번역자 집단 확대

그동안 국내에 원어번역이 드물었던 제3세계권에도 전문 번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보르헤스의 《불한당들의 세계사》 《픽션들》 《알렙》, 옥타비오 파스의 《이중불꽃》 등을 옮긴 황병하씨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내일을 여는 지혜》, 보르헤스의 《모래의 책》, 라틴 단편선인 《봄》 등을 번역한 송병선씨 등 라틴아메리카권의 전문번역가들이 단연 돋보인다.

중국어권은 광활약의 《중국고대사상사》 라이샤위의 《중국중세사회의 여행》 등을 번역한 조성을씨, 일어권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댄스, 댄스, 댄스》 등을 옮긴 유유정씨, 《일각수의 꿈》을 옮긴 김난주씨, 《오후의 마지막 잔디밭》을 옮긴 김춘미씨, 사기사와 메구무의 《레토르트 러브》를 옮긴 민성원씨, 무라카미 류의 《한없

분야별로 보았을 때 가장 다양한 언어권의 번역자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주로 전공분야의 교수들에 의존했던 형태에서 차츰 젊은 소장학자 및 전문번역가들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세대교체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최근 에드가 모랭의 《스타》,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를 번역했고, 또한 《베버와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 《막스 베버의 과학방법론》 《유교와 도교》 등 막스 베버 전문번역자로 자리를 굳혀온 이상률씨, 《레닌과 철학》 《바로 읽는 알튀세르》 등 알튀세르 관련 책을 번역해온 이진수씨, 마빈 해리스의 책을 다수 번역한 정도영씨, 리처드 팔머의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조셉 블레이처의 《해석학적 상상력》,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등 인문서들을 다수 번역한 조선일보 이한우기자, 《열린 예술작품》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철학의 위안》 《글쓰기의 유혹》 등 새물결 출판사에서 나온 움베르토 에코의 책들 중 다수와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화》 등을 번역한 조형준씨, 롤랑 바르트의 《이미지와 글쓰기》를 번역한 김인식씨, 최근 들뢰즈의 《칸트의 비판철학》을 옮긴 서동욱씨, 문예물과 아울러 조르주 바타이유의 《에로티즘》 등의 철학서를 번역한 이재형씨, EC관련 정치경제서들을 번역한 박광희씨가 두드러진다.

전문지식을 겸비한 새로운 번역자들이 등장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젊은 이들의 출판연구 모임인 '과학세대' 멤버들로 《스티븐 호킹의 삶과 사랑》 《우주의 역사》 《마틴 가드너의 양손잡이 자연세계》 《현대물리학이 탐색하는 신의 마음》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등을 번역한 김동광, 윤소영, 황현숙씨 등과 《이야기 파라독스》 등 자연과학서 10여종을 번역한 이충호씨가 알려져 있다.

— 허연 기자

최근 대학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젊은 전문번역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90년대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국내 번역물 시장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영미권은 물론 제3세계 언어권에 이르기까지 전문번역가들이 속속 등장, 전문지식을 겸비한 유려한 번역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를 옮긴 안재찬씨를 비롯, 야마다 에이미, 요시모토 바나나 등 일본의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한 전문번역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F소설분야에서는 《라마》 《토탈호러》 《환상특급》 등을 번역한 박상준씨와 SF전문번역집단인 '멋진 신세계'의 멤버로 《세계 여성소설 걸작선》을 번역한 안정희씨 등이 대표적인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